



홍기 피습을 당한 뒤 치료를 받아온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10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퇴원하고 있다.

리퍼트 美 대사 5일만에 퇴원

“비운 뒤 땅 굳어져...같이 갑시다” 한국어로 인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홍기 피습 후 닷새 만에 퇴원하면서 “한국 국민이 공감하고 성원해준데 대해 가족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어로는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격 현장에서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한국과 미국인 모두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밝힌 리퍼트 대사는 “사건 자체는 무서웠으나 견고 이야기하고, 아기를 안아주고 아내를 포옹도 할 수 있다”며 “팔은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복귀와 관련하여는 “가능한 한 빨리 복귀하고 싶다”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목적과 결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대사가 그랬듯이 군사적 파트너십과 역동적 경제·정치 문제를

비롯해 양국 국민의 협력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또 한국어로 “동네 아저씨, 세준이 아빠”라며 “한국인들이 불러주던 대로 동네아저씨이자 세준이 아빠로 남을 것”이라며 웃기도 했다.

자신에게 홍기를 휘두른 우리마당도도 지킴이 대표 김기중(55·구수)씨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조찬강연장에서 김씨가 휘두른 홍기에 새끼손가락의 찰과상, 약지에 1.5cm 크기의 상처, 전완부 안팎 관통상, 오른쪽 얼굴에 자상 등을 입었다.

피습 직후 가장 가까운 강북삼성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은 리퍼트 대사는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유대현 성형외과 교수와 최윤락 정형외과 교수의 집도로 얼굴을 80여 바늘을 꿰맸고 왼쪽 팔 전완부에 신경 접합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5년새 더 더워지고 추워졌다

■ 2014 통계연보로 본 광주·전남 기상

목포, 최고기온 3.7도 상승하고 최저 0.9도 하락

강수량도 해마다 들쭉날쭉...농작물 생육 악영향

광주·전남지역의 기후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고기온은 크게 상승하는 반면 최저기온은 낮아져 그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강수량은 해마다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시민생활은 물론 해수면 상승, 농작물 생육 등 자연 생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간된 2014년 전남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남 서부권인 목포 지역의 최고기온은 섭씨 33.2도, 최저기

온은 -7.9도였으나 5년 후인 2013년 최고기온은 36.9도, 최저기온은 -8.8도로, 각각 3.7도가 상승하고 0.9도가 하락했다.

최고기온의 경우 2009년 31.9도, 2010년 32.6도, 2011년 33.3도, 2012년 35.7도, 최저기온은 2009년 -8.4도, 2010년 -8.4도, 2011년 -8.3도, 2012년 -8.8도의 추이를 보였다. 지난 2012년을 전후로 과거와 차이가 커졌으나 더 더워지고, 추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최고기온이 상승하고 최저기온이 하락하면서 평균기온은 지난 2008년 14.

2도에서, 2013년 13.8도로, 0.4도가 떨어졌을 뿐이다.

전남 동부권인 여수지역 역시 비슷했다. 최고기온이 지난 2008년 31.9도였다가 2009년 31.2도, 2010년 32.5도, 2011년 32.4도, 2012년 34.3도, 2013년 34.5도로, 5년만에 2.6도가 올랐다. 반면 최저기온은 지난 2008년 -7.3도, 2009년 -7.4도, 2010년 -7.4도, 2011년 -10.4도, 2012년 -9.2도, 2013년 -9.3도로, 2도가 낮아졌다.

광주의 지난 2008년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35.1도와 -8.9도였다가 2013년 각각 36.2도, -10.3도로, 각각 0.9도 상승, 1.4도 하락했다.

강수량도 해마다 요동치고 있다. 지난 2008년 970mm에 그쳤다가 2009년 1375.7mm, 2010년 1550.1mm로 대폭 상승했다. 2011년에는 1387.1mm, 2012

년에는 최고치인 1682.5mm로 늘었다가 2013년에는 다시 1223.9mm로 줄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최고·최저기온의 변동이 크다는 것은 전남의 도시화나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어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지구온난화는 최소 10년 주기로 살펴야 하며, 최고·최저기온이나 강수량의 변동폭은 과거에도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안선은 지난 2008년 6032.3km에서 6743.3km로, 711.3km가 증가하고, 유인도도 276곳에서 297곳으로, 20곳이 늘었다. 간척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섬 선착장 건설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섬 거주인구는 2008년 16만6203명에서 5년만인 2013년 20만명을 넘어선 21만2584명으로 5만명 가까이 늘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나주 응급협진시스템, 전남 도서지역으로 확대

지역위, 행복생활권 선도 42개 선정...3년간 최고 30억 지원

광주·전남, 로컬푸드체계 구축·생태벨트 조성 등 6개 사업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10일 생활권 중심의 소생 상생 로컬푸드체계 구축 사업 등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42개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우선 작년 말 광주에서 개최된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소개한 광주·나주·화순 등의 응급협진시스템을 올해부

터 목포·해남·무안·진도·신안 등 전남 도서지역으로 확대한다. 목포 한국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4개 군의 중소병원·보건소 응급센터와 협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생활권중심의 소생 상생 로컬푸드체계 구축(광주·나주) ▲명품 생태·치유벨트 조성(순천·여수·광양·고흥·보

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중기능 교육활동 운영(곡성·구례·담양) ▲재난재해 공동 시설장비 및 보관창고 지원(함평·영광·장성) ▲농산업 창업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강진·영암·장흥) 등 광주·전남지역에서는 6개의 선도사업을 신규 선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은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일자리 창출지원, 생활인프라 등 주민복지 증진과 밀접한 분야이고, 3년 범위 내에서 국비기준 최대 30억원(국고보조율 70%)이 지원된다.

위원회는 “이번 사업공모는 생활권 선도사업 63개로 확대된 이래 처음 이뤄진 것”이라며 “전국 생활권에서 94건 사업을 신청받아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지역간 연계성 등이 높은 사업을 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으로 생활권 내 주민들에게 동일한 기초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올해 현재 전국에 63개 생활권이 구성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리산 생태탐방 연수원 개원

화엄사 지구에...가족과 생태체험 하며 1박2일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사지구 일대에 조성된 지리산 생태탐방 연수원이 11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생태탐방 연수원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에 머물면서 자연생태와 환경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하는 등 생태관광의 거점 시설로 활용된다. 지리산 생태탐방 연수원은 2011년에 건립된 북한산 생태탐방 연수원에 이은 것으로 숲 체험과 지역 문화시설 등을 연계해 자연체험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연수원은 부지 2만9474㎡에 강의실 2개, 체험실 4개, 생활관 21개를 갖췄다. 수용인원은 숙박 80명, 강의 또는 체험 200명이다.

올해는 가족과 동호회 등 소규모 단체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리산 비경을 찾아 떠나는 테마여행, 순천만·섬진강 등 주변 생태관광지역을 연계한 국립공원 수화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 누리집(eco-



tour.knps.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참여를 원하면 061-780-8700으로 전화하면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생태 탐방연수원 통합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약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 | | |
|------------------|---------------------|--------------------------|
| 소갈비살 기본가격 | 기본2인분 2+2 = 20,000원 |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
| | 기본3인분 3+3 = 30,000원 | 국내산갈비매기살2+2(480g) 20,000 |
| | 기본4인분 4+4 = 40,000원 |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출브랜드로 손님들께 특별한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출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사 파견 업무**
경의소질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신다면 자세한 안내를 우선하여 드립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유망지역 투자전략 세미나

현 토지 시장의 트렌드를 낱알이 밝히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토지투자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 |
|------|-------------------------|
| 장 소 |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
| 일 시 | 2015. 3. 12(목) 2시/7시 |
| 문의전화 | (062) 383-1330(사전 예약) |

강/의/내/용

- 상반기 부동산 소액투자 전략
-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
-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 개발 유형별 토지 투자가격 분석
- 광주·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투자처 및 확실한 투자전략법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합법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